

Doctors

VOL. 41 SUMMER 2021

COMMUNICATING WITH SOONCHUNHYANG UNIV. SEOUL HOSPITAL



최상의 진료협력서비스를 약속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는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 및 회신, 회송(전원)을 통해 의료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물론 의료기관 간 공동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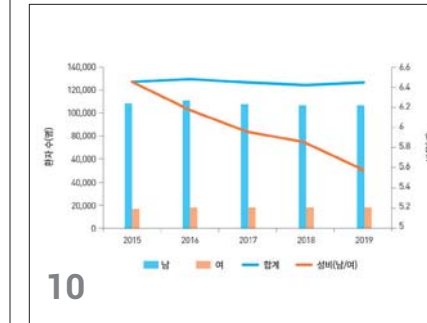
의뢰환자 '진료정보제공 동의서' 안내

의료법 제 21조 2에 의거하여 의뢰환자의 진료결과를 의뢰 의사가 조회 및 회신 받고자 할 때는 환자나 보호자(법정)가 동의 서명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Contents

VOL. 41 SUMMER 2021

- 02 **PARTNERSHIP1**
세상에 똑같은 '눈'은 없다,
그래서 더 특별하다
이용석 ES우리안과의원 대표원장
- 04 **PARTNERSHIP2**
주인과 정(情) 나누는 '사랑방' 같은 병원
박정환 박정환내과의원 원장
- 06 **MEMBERS**
코로나와 함께했던 샌디에고 연수기
노재휘 정형외과 교수
- 10 **OPINION1**
알코올 간질환
장영 소화기내과 교수
- 14 **OPINION2**
쇼그렌증후군 업데이트
진단과 침샘초음파
이경연 관절류마티스내과 교수
- 16 **VIEW POINT**
성소수자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은실 산부인과 교수
- 18 **CULTURE**
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 에드시런까지
관람 후기
박혜란 신경외과 교수
- 21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협력 병·의원 선생님들을 위한
2021년 일요종합건강검진
- 22 **LIST**
협력 병·의원



EDITOR'S NOTE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더위에 반복되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지치는 여름이지만, 새로운 일상, 뉴노멀로 가기 위한 모두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호는 이예스 우리안과와 박정환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소중한 말씀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대확산으로 인해 협력 병·의원 방문이 조심스러웠으나, 최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정형외과 노재휘 교수께서 UCSD 연수기를 전해주셨고, HCV 및 쇼그렌 증후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젠더클리닉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연기되었던 일요건강검진 행사도 진행되어,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무더운 더위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여름
편집장 박혜란

통권 41호 발행일 2021년 7월 23일 발행인 서유성 편집장 박혜란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 59 문의 02-709-9900 E-mail schrc@schmc.ac.kr
편집·디자인 피엔플러스(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이응석 ES우리안과의원 대표원장

“세상에 똑같은 ‘눈’은 없다, 그래서 더 특별하다”

철저한 환자 맞춤형 진료...봉사와 나눔으로 사회공헌도

지난해 4월 개원한 ES우리안과의원은 개원한지 불과 1년 만에 병원들의 격전지인 강남역에서 손꼽을만한 경쟁력 있는 안과로 자리매김했다. 까다로운 환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첨단 의료설비를 갖췄을 뿐 아니라, 각 분야 최고의 명인들이 함께 의기투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봉사와 나눔을 의사의 기본 덕목이라 여기는 의료진의 마음은 환자들 뿐 아니라 이 사회에 큰 감동마저 주고 있다.

대담_ 선혜정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안과 교수 | 정리_전진용 | 사진_최종엽

“처음 개원을 준비 할 당시,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화 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이응석 대표원장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강남역 한 복판에 과감히 개원을 결심했다. 임대비 등 높은 초기 투자금도 부담이었지만 수준 높은 병원들이 밀집해 있는 강남역에 개원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스승이신 운영훈 명예원장님과 각 분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원장님들과 함께 하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자부심을 갖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리도 잡았구요.” 이 원장은 순천향대학병원에서 교수와 지도전문의로 활동한 바 있다. 그 인연으로 안과분야 최고의 명의로 꼽히는 운영훈 원장과의 사제 간의 연을 맺었다. 지금은 함께 병원을 운영하며 ES우리안과의원을 강남에서 손꼽히는 안과병원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항상 동경했던 안과전문의 선배님들처럼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의사로 병원을 잘 이끌어 가고 싶습니다. 안과 관련 각 분야의 최고 전문의들과 함께 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지금 보다 더 큰 안과전문 병원으로 키워보고 싶습니다.”

최고 의료설비 · 최고 의료진의 시너지

강남역에 위치해 있지만 전국 여러 곳에서 환자들이 찾고 있다. 전라도, 남해의 섬에서 까지 찾는 환자들이 다양하다. 최고의 의료설비와 최고의 의료진이 입소문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운영훈 명예원장 뿐 아니라 이응석, 손윤중, 김정용 원장은 망막분야, 백내장, 렌즈 삽입술, 라식 및 라섹 등 저마다 각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의들이다. “사람의 눈은 모두 각기 다른 각막곡률, 각막두께, 전방 깊이, 안축장 길이, 수정체 모양과 두께, 홍채 크기와 모양 등 아주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의 직업과 고혈압, 당뇨 등 전신적인 질환, 유전적 질환, 가족력 등 눈에 미치는 환경요인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환자 맞춤형 진료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환자별 특성에 따른 완벽한 맞춤형 진료를 위해 의료설비도 국내 최고 수준을 갖추고



있다. 설비와 의료진의 시너지를 통해 환자 진료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개원 초라 설 새 없이 진료를 보고 환자를 관리하다 보니 일요일 하루를 빼고는 쉴 시간조차 부족하다. 그래도 항상 환자진료에는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초기에는 11시 이전에 퇴근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수술 횟수도 아마 최상위 병원그룹에 속할 거예요. 힘들지만 환자가 만족하고 병원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봉사와 나눔으로 사회공헌도 실천

이 원장은 환자를 돌보라, 병원을 경영하라, 이 바쁜 와중에도 자신 스스로 약속한 것이 있다. 바로 ‘의료봉사’다. 매년 2회 이상, 백령도에 가서 안과환자를 돌보는 것이 그 약속이다. 개원 후 이미 3번째 백령도를 다녀왔다. 이런 봉사의 마음은 사실 의사인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대학병원 정년을 마친 이 원장의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백령도에 들어가 환자를 돌보고 있다. 이런 아버지가 이 원장의 의사로서의 롤모델이자 멘토인 셈이다. “의사에게 ‘봉사정신’은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해요. 백령도는 안과병원이 없어 치료를 받으려면 배를 타고 5시간을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 환자를 위해 백령도에 가신 아버지를 보며 저도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이 원장은 의료봉사에 그치지 않고 나눔을 통한 사회공헌도 실천하고 있다. 깊은 인연이 있는 순천향대학병원에 지난해 7월 병원 발전기금으로 5천만원을 기부했다. 그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는 1998년 무의촌 의료봉사 활동을 계기로 교직원들이 후원회를 결성해 운영해왔다. 2004년부터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위해 ‘순천향나눔회’를 창립해 후원을 왔다. 여기에 이 원장이 동참한 것이다. 이 원장의 기부금은 수술비지원 사회사업,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 의료인 양성과 연구 등 뜻깊은 곳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 역시 한 명의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인간사랑, 환자사랑의 뜻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이 원장은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의 끈끈한 교류도 이어나갈 생각이다. ES우리안과의원에게 부족한 점을 서울병원을 통해 채울 수 있어 환자진료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실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서울병원을 연결해주고 서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배우기도 하거든요. 양 병원 모두와 환자에게 매우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원장은 “6명의 안과전문의들과 총 70여명의 모든 병원직원들이 모두 최고의 의료진으로 하나가 되어 병원을 잘 이끌어 가고 있다”며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눈이지만 인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곳인 만큼 환자 한명 한명에게 차별화된 치료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환내과의원

주민과 정(情) 나누는 ‘사랑방’ 같은 병원
욕심은 버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박정환 원장은 지난 3월 5일 금호동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박정환내과의원을 개원했다. 삼사년 전부터 개원 준비를 한터라 마냥 미룰 수는 없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병원은 어느덧 3달째 운영 중이다. 힘든 시기이지만 개원을 후회한 적은 없다. 여러 환자와 소통하면서 이제는 동네에는 없어서는 안 될 친구 같은 병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박 원장은 누구나 편히 들러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치 ‘사랑방’ 같은 병원을 꿈꾼다.

대담_ 박혜란 편집장 | 정리_전진용 | 사진_최종엽



“오랜 시간 병원에 몸담았지만, 개원을 생각한지는 3~4년 전부터였습니다. 주변의 개원을 한 친구들의 영향도 있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박 원장의 장인어른은 금호동에서 30년 넘게 이비인후과를 운영해 온 의사다. 한참 의사선배이기도 한 장인어른의 권유로 같은 건물에서 사위는 내과를, 장인어른은 이비인후과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사실 어려운 시기에 한 개원이라 마치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병원을 운영해 오신 장인어른의 덕분에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고 환자와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3달밖에 안됐지만, 동네의 여러 환자들이 마음 편히 병원을 찾는다.
“크게 아프지 않은 주민들도 병원에 들러 수액이라도 맞고,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눕니다(웃음). 먹을 것들을 들고 와서 나눠주시기도 하구요. 아직 이웃 간의 정이 많이 남아 있는 동네입니다.” 코로나19 접종이 시작된 후에는 백신접종 후유증으로 소화불량이나 복통 등의 환자가 늘었다. 동네 주민들이 작은 증상이라도 있으면 쉽게 박정환내과의원을 찾아와 이것저것 물어보고 쉬다가는 사랑방 같은 병원이 되어가고 있다. “개원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환자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행인 것이, 그렇기에 환자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경청하고 잘 설명해주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개원을 권유했던 장인어른과는 가끔 저녁에 술 한 잔을 하며 여러 이야기를 나눈다. 개원 후에는 의사 선배로서의 여러 조언들을 들으며 시간을 함께 한다. “항상 하시는 말씀은 ‘욕심을 버리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 장인어른의 말씀입니다” 선배의 조언이기에 병원경영과 환자진료에 적용하려 노력 중이다. “세대 차이가 있어서,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많은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거나 진료를 하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 등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사위의 개원을 위해 병원 건물도 안팎을 전부 리모델링했다. 조금이나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환자들이 편히 진료를 받게 하기 위한 노력인 셈이다. 코로나19 유행이후에는 병원 위생과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병원을 키우거나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환자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의사가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 뿐 아니라 세상은 이런 저런 얘기를 환자와 나눌 수 있는 병원이면 좋겠습니다. 환자가 늘면 의사선생님을 응원해서라도 환자분들에게 시간을 할애할 계획입니다” 박 원장은 환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환자에게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환자와의 대화 속에서 진료와 관련된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기도 합니다. 의사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 인거죠. 환자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 아닐까요?”

모교 병원과 끈끈한 협력체계 구축
박 원장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인턴, 내과전공의, 소화기내과 임상교수를 거쳤다. 개원 후에는 모교 서울병원이 인근에 있어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저희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과 병원이 눈부시게 발전한 모습을 보면, 동문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행히 서울병원이 인근에 있어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병원의 여러 협력병원 지원제도를 이용해 환자 진료와 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력병원이 되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으로부터 환자 진료기록이나 여러 검사 관련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환자진료의 정확도를 높이고 치료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시간 단축은 물론이다.
“서울병원에 협력병원 지원체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원장은 “병원을 키워 부를 축적하겠다는 목표보다는 주민들이 누구나 마음 편히 찾아와 물어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웃같은 병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장인어른신의 가르침처럼 욕심을 버리고 환자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친근한 동네병원이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정환내과의원의 홈페이지를 보면, 박 원장이 추구하는 병원이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실력에 감동을 더하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환자의 질문에 귀 기울이는”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박 원장이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자, 앞으로 박정환내과의원이 걸어 갈 길이다.

코로나와 함께했던 샌디에고 연수기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노재휘입니다. 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 미국 San Diego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다녀온 곳은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Radiology department였고 이곳은 Donald Resnick이라는 Musculoskeletal radiology의 유명한 석학이 계신 곳으로도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샌디에고의 날씨는 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1년 내내 온화한 기후입니다. 사계절 반바지에 반팔 옷이 가능합니다. 여름 온도는 섭씨 18~27도, 겨울 온도가 10~22도 정도 되어 추운 날씨를 싫어하는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날씨였습니다. 비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편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사진 노재휘
정형외과 교수
전문분야
수부상지, 고관절 및 골반,
인공관절,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
진료일정
오전: 월, 목
오후: 월, 금



같이 샌디에고 연수 온 교수님들과 저녁 식사



1년간 머물 집에 입주할 때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



UCSD medical center 전경 및 병원 내 radiology department의 건물



San Diego 도착 후 정착

미국으로 출국하는 날에 한국에는 신천지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여 어수선한 분위기였으나, 미국에 도착하니 당시 미국은 코로나 환자가 거의 없었고 마스크 쓴 사람도 전혀 없이 정상적인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San Diego의 Carmel valley 지역의 미국식 주택을 계약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항상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왔기에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집을 선택했습니다.



팬데믹 중에 다닌 여행들

Lock down 및 코로나 대응

미국 도착 후 1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미국 뉴욕이 코로나에 뚫리고 감염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었습니다. 갑자기 식료품 상점을 제외한 모든 관공서와 학교, 상점, 식당 등이 문을 닫아버리는 상황(Lock down)이 발생해서 너무도 당황스러웠습니다. 3월 첫 주 UCSD 본교에서 visiting scholar에 대한 orientation 시행 후 본격적으로 3월 둘째 주부터 출근을 시작하였는데, 뉴욕에서부터 코로나 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병원 시스템이 마비되고 모든 병원들도 Essential worker를 제외하고는 출입이 폐쇄되어 lock down이 지속되었던 5월 초까지는 집에서 머무르며 답답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간에 조기 귀국을 한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이후 미국도 점차 이성을 찾아 가면서 모든 것이 재택 근무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변화되었고, zoom을 이용한 online meeting과 conference가 재개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있던 곳은 lock down에 반대하는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어서 4월 중순부터는 조금씩 제재가 풀리면서 lock down의 기초는 유지하되 social distancing을 유지하면서 일상으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코로나로 인해 우리 가족들이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점은 여행을 다니기 수월 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해외 관광객이 2020년에는 거의 없었고, 제한된 미국에 사는 사람들만 여행을



코로나 감염에 의한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병원 시스템이 마비되고 모든 병원들도 Essential worker를 제외하고는 출입이 폐쇄되어 lock down이 지속되었지만 5월 이후 미국도 점차 이성을 찾아 가면서 모든 것이 재택 근무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변화되었고, zoom을 이용한 online meeting과 conference가 재개되었습니다.



짙앞에서 보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석양

다니다 보니, 예약이 어렵다는 미국 내 유명한 곳들을 오히려 쉽게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샌디에고는 미국 남서부의 구석에 위치해있어 제가 운전해야 하는 거리는 어마어마 했지만, 여행가는 곳마다 한산하고 주차도 쉽고, 교통 체증도 없어서 정말 많은 곳을 편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 관광지에서도 여행 온 사람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은 미니밴에 자전거 4대를 싣고 다니면서 경사가 완만한 트래킹 코스들을 다니면서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San Diego 즐기기

여행을 다니다가 샌디에고로 돌아오면 이곳이 제일 좋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들게 됩니다. 물론 식당 영업을 제한적인 곳이 많아서 와이프가 집에서 밥을 차리는 것이 큰 일이라 저도 한국에서와 달리 가사일에 있어서 와이프를 열심히 도와 주곤 했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돌아오면 아이들과 함께 보살펴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먹고, 공부시키고 여기저기 데려다 주는 일에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데, 이곳에서 한국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었던 여러 스포츠 캠프를 다니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수영, 골프, 스텐트 스쿠터(요기용 킥보드), 스케이트보드, 서핑, 농구 등 친구들과 함께 정말 해가 질 때까지 매일 하면서 놀다가 들어오고 놀다 지쳐 잠드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학원 다니던 아이들이 많이 밝아져서 아빠로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적지 않은 제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그로 인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저희 가족을 위해 걱정도 많이 해 주셨지만, 한국보다 인구밀도도 낮고, social distancing도 잘 이루어지다 보니 제가 있던 곳은 큰 제약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태까지 의사가 되어 한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저에게 이번 미국 연수는 시야가 넓어지고, 정말 큰 휴식이 되고, 가족들과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알코올 간질환



글_ 장영
소화기내과 교수
전문분야
간염, 간경변,
간염(A,B,C형간염및 지방간)
진료일정
오전:토(2,4주)
오후: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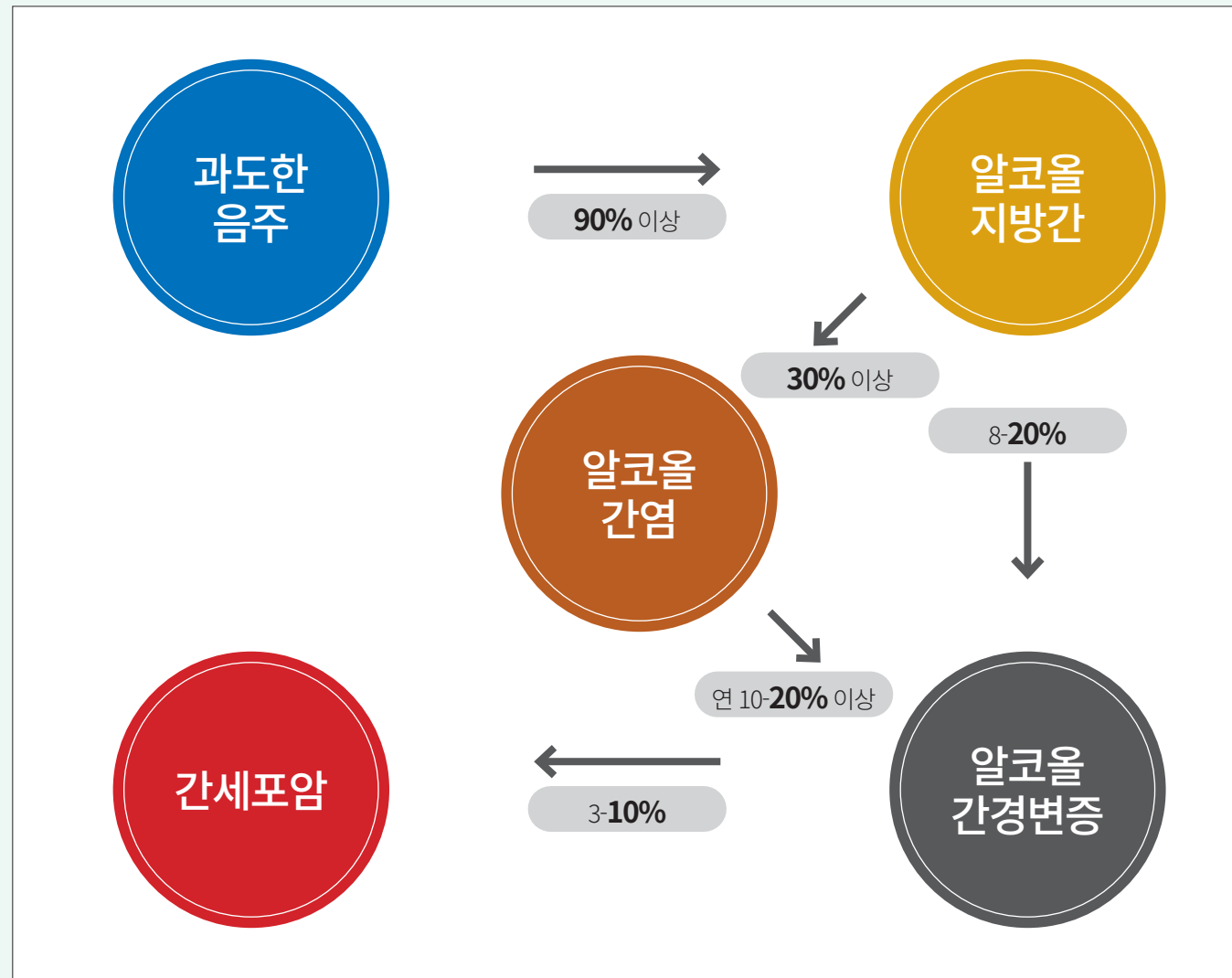


그림1. 알코올 간질환의 자연 경과



알코올 간질환의 정의

알코올은 각종 간염 바이러스와 함께 간질환을 유발하는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알코올 간질환은 국내 만성 간질환의 약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지속적인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간 내 지방 침윤 및 간 비대를 유발하고, 알코올지방간이 지속되면 간세포의 염증 및 괴사가 동반되는 알코올간염으로 진행되며, 이러한 알코올지방간이나 알코올간염이 만성화되면 중증의 섬유화, 재생결절 등을 동반하며 간의 크기가 위축되는 알코올 간경변증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간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알코올 섭취량이며, 알코올 대사효소의 유전적 다형성 및 알코올 간손상의 유전적 감수성과 같은 유전적 요소와 개인의 영양상태, 동반질환 등의 환경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코올 간질환을 일으키는 알코올 섭취량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나 한국인의 경우 하루 평균 알코올 섭취량이 남자의 경우 40g, 여자의 경우 20g을 초과할 때 알코올 간질환을 진단하기에 유의한 섭취량으로 정의합니다.

알코올 간질환의 자연경과

알코올지방간은 대부분의 과음자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대개 무증상이며, 이 상태에서 술을 끊으면 정상 간으로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코올간염이 발생하면 간섬유화가 동반되고, 오랜 기간 알코올간염이 지속되면 간섬유화가 가속되어 간경변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알코올간염에서 알코올간경변증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연간 약 10-20%로 보고되고 있고 알코올간염 환자의 70%가 결국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국내 알코올 간질환의 유병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알코올 간질환으로 치료 받은 환자 수는 2019년 전체 126,170명으로 그 중 남자가 107,006명(84.8%), 여자가 19,164명(15.2%)이었습니다. 2015년에 비해 알코올 간질환 전체 환자 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남/여 성비는 2015년 6.4에서 2019년 5.6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알코올 간질환의 여자 환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남자 알코올 간질환 유병률은 50대(34,557명)에서 가장 높고, 뒤이어 60대(28,481명)와 40대(21,221명)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50대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았고, 40와 60대가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부 상병 별 진료 환자 수는 남성의 경우 알코올간염(29,212명, 27.3%), 알코올지방간(26,757명, 25.0%), 알코올 간경변증(23,361명, 21.8%) 순으로 많았고, 여성의 경우도 같았습니다.



알코올지방간은

대부분의 과음자에서 흔하게 발생할 수 있고 대개 무증상이며, 이 상태에서 술을 끊으면 정상 간으로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코올간염이 발생하면 간섬유화가 동반되고, 오랜 기간 알코올간염이 지속되면 간섬유화가 가속되어 간경변증으로 진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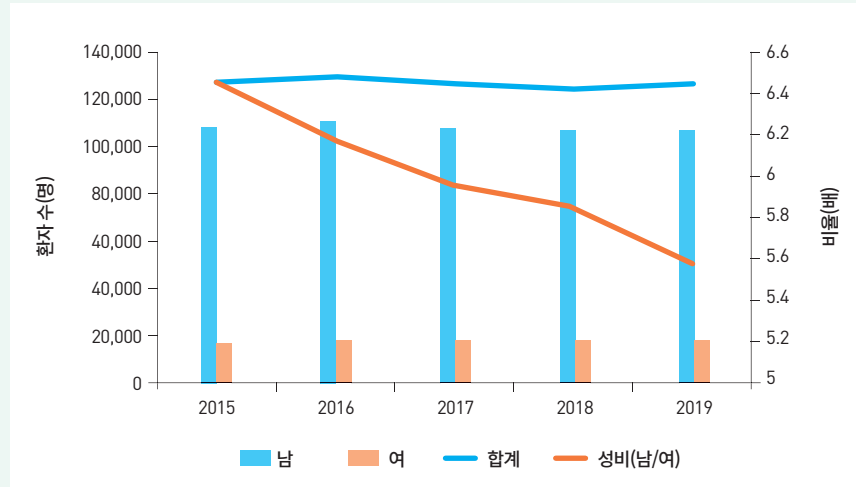


그림1. 알코올 간질환 환자 수 및 남·여 성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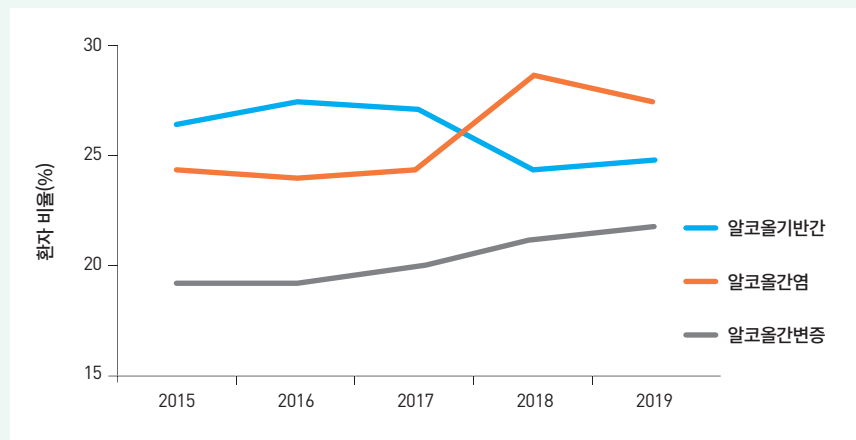


그림2. 알코올 간질환의 세부 상병 별 환자 비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한국인 만성 간질환에서 알코올 간질환의 비중

국내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 간경변증의 원인은 B형간염이 64.9%로 가장 많고, 알코올이 18.6%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간세포암의 원인도 마찬가지로 B형간염이 60%로 가장 많았고, 알코올 간질환이 C형간염과 함께 12%를 차지하여 간세포암의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환자 본인이 실제 음주량보다 축소하여 인지하거나 보고하는 경우가 많아 알코올이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집계되는 수치보다 더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코올 간질환의 질병부담

통계청에서 발표한 연도별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2018년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4,910명, 인구 10만 명 당 9.6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고, 2008년과 비교 시 5.8% 증가하였습니다.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에 비해 약 6.3배 높고 남/여 성비가 2008년 10.6에서 2018년 6.3으로 여자의 알코올 관련 사망률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 자료를 활용하여 알코올 간질환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19년 알코올 간질환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1,143억원으로 2015년도와 비교 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년 간 약 353억원(44.7%)이 증가하였습니다.



알코올 간질환은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40-50대 중년 남성에서 호발하며, 의료비용 또한 40-50대 중년 남성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함을 시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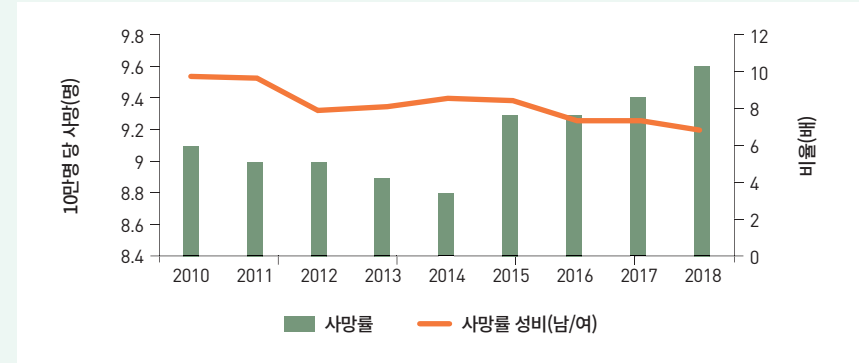


그림3. 알코올 관련 사망률 및 성비(통계청,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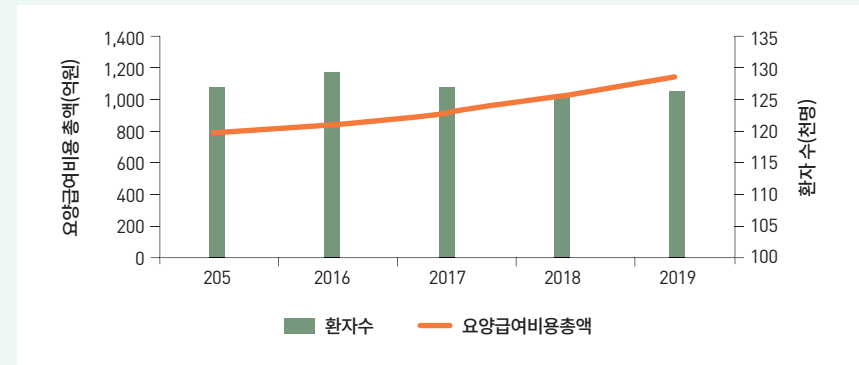


그림4. 알코올 간질환의 연간 의료비용 변화 추이(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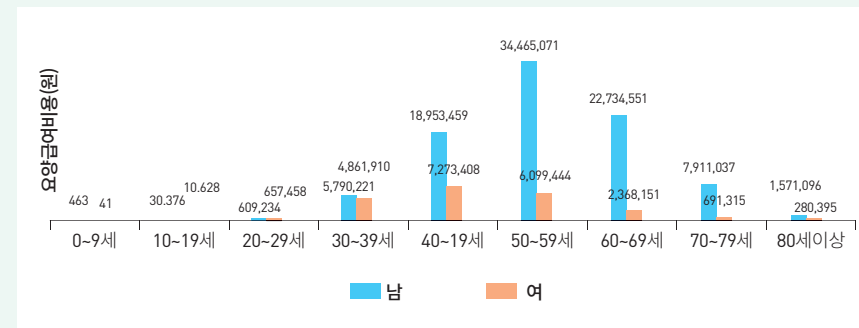


그림5. 알코올 간질환의 성별, 연령대별 의료비용(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특히 알코올 간질환은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40-50대 중년 남성에서 호발하며, 의료비용 또한 40-50대 중년 남성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사회·경제적 부담이 상당함을 시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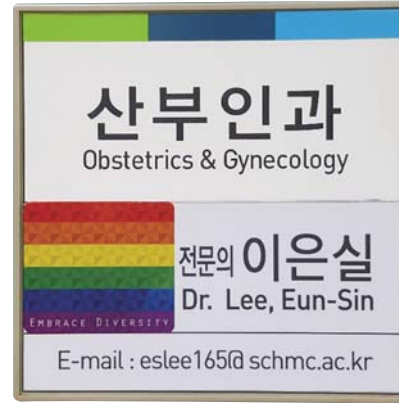
결론

과다한 알코올 섭취는 알코올 간질환을 유발하며 만성적으로 지속될 경우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간질환은 조기에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경우 질병의 진행을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 치료 효과를 충분히 얻기 어렵고,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알코올 간질환을 예방하고 조기에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젠더클리닉 소개 “성소수자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글 **이은실**
산부인과 교수
전문분야
산부인과 질환, 산전관리,
생리불순, 폐경 및 골다공증,
성인젠더클리닉
진료일정
오전: 월, 금,
토(1, 3주 젠더클리닉)
오후: 월, 금



성소수자 친화클리닉임을 명시한 진료실 표식

SEXUAL MEDICINE

ORIGINAL RESEARCH

Attitudes Toward Transgender People Among Medical Students in South Korea



Sa Ra Lee, MD, PhD,¹ Min-A Kim, MD,² Mun Nyeong Choi, MD,² Suyeon Park, MS,³ Jaehyun Cho, MD,² Chulmin Lee, MD, PhD,⁴ and **Eun Sil Lee, MD, PhD²**

ABSTRACT

Introduction: Interventions aimed at changing knowledge, attitudes, and beliefs of resident physicians and medical students have been made to incite a significant positive increase in attitudes, comfort, and knowledge toward th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LGBT) community, as well as increased levels of competency among participants.

Aim: To use insights from the attitudes of medical students toward transgender people and demonstrate that adding lectures on transgenderism would make the medical school curricula more comprehensive and trans-inclusive by improving overall attitudes toward the LGBT community.

Methods: A total of 49 medical students completed the preintervention survey with the Genderism and Transphobia Scale and Attitudes Toward Transgendered Individuals Scale, and then took a class on transgenderism, whereas 39 individuals completed the 4-week postintervention survey following the same measures.

Main Outcome Measure: Three items of survey wer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Genderism and Transphobia Scale, and the Attitude Toward Transgender Individuals Scale.

Results: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ean score between the preintervention and postintervention surveys, those who had minority individuals as peers and those who had previous LGBT-related education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attitudes than those without after the lecture. As a result of analyzing all the data from the pre/postintervention surveys, being of the female gender and having minority individuals as peers positively affected attitude.

Conclusion: Al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attitude change after the lecture, those who had previous LGBT-related education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attitudes at pre/postintervention surveys than those withou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aising awareness and education should be continued for a positive attitude toward more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LGBT. Given the lack of studies on transgenderism that involve students in the medical profess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shows the necessity of curricula creation of transgenderism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serve as a basis for curricula creation and student guidance that will help creating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sexual and gender minorities. **Lee SR, Kim M-A, Choi MN, et al. Attitudes Toward Transgender People Among Medical Students in South Korea. Sex Med 2020;9:100278.**

Copyright © 2020, The Authors. Published by Elsevier Inc. on behalf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Sexual Medicin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under the CC BY-NC-ND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Key Words: Transgender; Attitudes; Genderism and Transphobia Scale; Attitudes Toward Transgendered Individuals Scale; Education



이 논문은 이은실 교수가 주제가 되어 트랜스젠더에 대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2학년 학생들 일부의 의견을 조사한 논문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는 2015년에 처음 젠더클리닉을 개설하여 트랜스젠더 환자의 상담 및 성호르몬 치료를 해왔습니다.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성소수자 인권단체 활동가들과의 만남에서 성소수자 특히 트랜스젠더들이 믿고 의지할만한 병원이 너무 부족해서 온라인상에서 호르몬을 구해서 복용하는 분들이 많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것을 듣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처음 젠더클리닉을 열었을 때는 20여명의 환자로 시작했으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립대학 (UCSF)의 Benioff children's hospital의 소아 및 청소년 젠더클리닉 연수를 마치고, 이후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한 2017년 하반기부터는 급격히 늘어 현재는 250여명이 클리닉을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젠더클리닉은 진료실에 젠더클리닉이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젠더클리닉이라고 명시함으로써 클리닉을 찾은 사람들이 '아우팅(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이 밝혀지는 행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진료실 앞에 무지개 스티커를 붙여 성소수자 친화 클리닉임을 명시하고 산부인과 진료실 건물에 있는 모자센터 2층에 가족화장실을 설치하여 성중립화장실 (gender neutral restroom)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 성별정정 및 이름정정을 하기 전까지 자신의 외모와 상반되는 이름을 가진 경우도 종종 있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선호하는 이름(예명)을 가지고 있고, 이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본원 젠더클리닉에서는 초진 환자의 서식지에 자신의 선호하는 이름,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표기하도록 안내하고, 이후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법적인 남녀의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정체성을 가진 넌바이너리 젠더를 표명하는 환자들에게도 환자 자신이 추구하는 바에 맞게 목표를 정하고 맞춤형으로 치료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젠더클리닉에서는 성인 트랜스젠더 뿐 아니라 청소년 트랜스젠더의 상담 및 호르몬치료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별위화감은 빠르게는 취학 전에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중 많은 수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다시 생물학적인 성과 동일한 성별정체성을 느끼게 되지만 (이러한 사람을 트랜스젠더의 반대개념인 '시스젠더'라고 합니다) 일부는 성별위화감이 사춘기가 되면서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성별위화감이 지속되는 동시에 자신의 성별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이차성징이 신체적으로 나타나면서 신체혐오감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춘기에 성별위화감이 지속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춘기억제제로 불리우는 성전자극호르몬 분비호르몬 작용제(GnRH agonist)를 투약하여 이차성징이 발현되는 것을 억제하고, 이후 성별정체성에 따른 호르몬 치료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차성징을 억제함으로써 원치 않는 신체 발달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대한 탐색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억제제는 조발사춘기 아동들에게 30여 년간 사용되면서 장기간 안정성을 인정받은 치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사춘기억제제 투약 이후 만 16세부터 청소년의 성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도록 권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성호르몬 치료 시작 연령을 14세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사춘기 트랜스젠더의 성호르몬 치료 연령이 공식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도 '인간 사랑, 환자 사랑'이라는 주제 하에 진행되는 '젠더 및 트랜스젠더의 이해'라는 강의를 통해 트랜스젠더의 의학적 의미와 이들을 의학적으로 지지하고 치료하는 법'에 대하여 배우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한 시간 동안의 강의지만 의사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를 덜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 에드시런까지 관람 후기

“초상화라는 작은 촛불이 빛을 비춤으로써
어떤 이의 삶은 처음으로 빛을 본다”

토머스 칼라일, 전기 작가, 수필가,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 창립자

스마트폰에 1,000만화소를 넘어 2,000만화소 전면카메라까지 정착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셀피(셀프카메라)를 잘 나올 때까지 무한으로 찍을 수 있는 요즘에도, 초상화라고 하는 장르는 사진 기술과 높은 해상도로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영국 국립초상화박물관 명품전을 부끄러운 짧은 식견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위치한 용산구에 살면서 좋은 점 중의 하나가 근처에 박물관과 용산가족공원이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주말에 햇빛이 너무 좋다면 편하게 산책도 할 수 있고, 가끔은 이번처럼 좋은 전시나 공연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 에드 시런까지>는 1856년 개관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화 전문 미술관인 영국 국립초상화박물관의 소장품 78점을 들여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5개의 주제로 나뉘어 구성되었으며, 각각 ‘명성, 세상에 떨친 이름’, ‘권력, 세상을 움직이는 힘’, ‘사랑과 상실’, ‘혁신, 진화하는 초상화’, ‘정체성과 자화상’입니다. 대문호 셰익스피어, 대영제국을 이끈 엘리자베스 1세, ‘폭풍의 언덕’을 쓴 브론테 자매, 진화론의 찰스 다윈, 만유인력의 아이작 뉴턴부터 당대 최고의 오드리 헵번, 세계적인 가수 에드 시런 등 현대 인물들에게까지 이르는 초상화를 볼 수 있습니다. 고전적인 유화 작품도 있지만, 조각을 거쳐 사진과 홀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초상화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전시라고 생각되어, 특히 인상 깊게 보았던 작품 몇 점을 간단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이며 사상가인 아이작 뉴턴의 초상화입니다. 뉴턴은 생전에도 명성이 드높아 초상화 모델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기꺼이 수락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머리와 어깨 구도, 가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옷의 천 등이 초상화의 고전적인 구도를 따르고 있지만, 꿰뚫어보는 듯한 강렬한 시선으로 그의 천재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뉴턴 또한 이 초상화가 마음에 들었는지, 죽을 때까지 소장하였다고 합니다.



글 박혜란
편집장, 신경외과 교수
전문분야
정위기능신경외과,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사이버니아프 방사선수술,
뇌혈관질환
진료일정
오전: 수, 금
오후: 수, 금



아이작 뉴턴 (1642-1727)
- 고드프리 벨리, 1702 -



에드 시런 (1991-)
- 클린 데이비슨, 2016 -

보라, 여기 메리 시콜이 있다.
크림반도에서 등불을 비추던 나이팅게일만큼이나 큰 공을 세웠으나,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나이팅게일의 불빛에 가려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여

So honey now Take me into your loving arms
Kiss me under the light of a thousand stars
Place your head on my beating heart
I'm thinking out loud
Maybe we found love right where we are

- 에드 시런, <Thinking out Loud> (2014)

영국 국립초상화박물관은 예전에는 사후 10년이 지난 인물의 초상만 전시하였으나, 그 기조가 바뀌면서 생존해 있는 1991년생 가수인 에드 시런의 초상화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에드 시런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 한 명으로, 활동 초기부터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소통하며 활동하였는데, 인터넷의 막강한 영향력을 잘 알고 이를 활용해 명성을 만들 줄 아는 인물입니다.

- 살만 루슈디, 악마의 시 (1988) 중

자메이카 출신의 간호사로 크림 전쟁 때 나이팅게일의 간호단에 참가하려 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뒤 혼자서 전쟁터에 가 군인들을 위한 간호소를 운영하며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이 그림은 메리 시콜의 유일한 초상화로, 60대에 접어든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림 속의 그녀는 수수하지만 가슴에 단 훈장 세 개가 보여주듯 인생에 대한 자부심이 어려있는 모습입니다. 메리 시콜은 세상을 떠난 뒤 곧 잊혀졌고, 이 그림 또한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2004년에야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세상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히 인생을 살아낸 사람만의 위엄이 느껴집니다.



메리 시콜 (1805-1881)
- 앨버트 찰스 켈린, 1869 -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초상
- 니컬러스 힐리어드, 1575 -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자신의 초상화에 그저 젊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투명에 가까운 순수, 그러면서도 총명한 위엄이 드러나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백옥같이 하얗게 표현된 여왕의 얼굴과 어גע 장식의 진주, 검은 바탕 옷에 하얀 레이스 장식은 그 순결과 불결을 상징합니다. 가슴 한가운데에는 불사조 장식이 있는데, 여왕은 새끼를 살리고 자신이 죽는 펠리컨을 자신의 상징으로 내세워 헌신적이고도 영원한 여왕의 이미지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밀그림을 보면 눈의 위치와 코의 길이가 수정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자신의 공식적인 이미지를 철저하게 관리했던 여왕이 그림 수정을 지시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1대 캐플남작 아서 캐플 (1604-1649)과 부인 엘리자베스(?-1661) 그리고 그 자녀

- 코넬리우스 존슨, 1640년경 -

캐플가는 본래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중의 하나였으며, 이 작품은 캐플 가족이 안락한 생활을 누리던 시절에 남작 부부와 그 아이들을 그린 가족 초상화입니다. 아서 캐플은 찰스 1세의 정책에 반대하는 의회파였으나, 이후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의 폭력성에 반대하며 왕당파로 돌아섰고, 찰스 1세가 처형되면서 아서 캐플 또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작위를 계승한 장남 아서(제일 좌측) 역시 투옥되었다가 사망하였습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무사히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화면 뒤쪽에 보이는 넓은 저택의 정원이 이 초상화를 그릴 당시 가족의 지위와 부를 보여주지만, 이 때만 해도 이후에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화목한 가족을 그린 그림이 슬프게 보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에게 기억될 때 아무래도 가장 큰 인상을 남기는 부분 중의 하나는 외모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길에서 방금 짧게 잠깐 스쳐 지나간 사람, 오래 알고 지낸 친구나 가족, 나는 그를 TV에서 자주 보아 알고 있지만 그는 나를 알 리 없는 유명 인사,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얼굴과 외모로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 속에서 그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 함께 기억하는 것은, 그 얼굴과 외모가 고왔는지 추했는지, 걸치고 있는 옷과 물건의 가격대가 어느 정도였고 얼마나 화려했는지가 아니라, 그 얼굴과 외모가 주는 인상과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젊고 아름답지만 날카롭고 불안해 보이는 얼굴도 있고, 세월과 함께 생긴 주름을 굳이 감추지 않지만 당당하고 여유가 느껴지는 얼굴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얼굴은 그 사람이 삶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자서전과 같습니다. 이번 전시를 보고 돌아오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얼굴로 남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며 잠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되실 때 잠시 초상화전을 보시면서, 역사 속 인물들과 눈을 맞추고 표정을 읽으며 그들의 삶을 떠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술에 문외한인 저도 크게 어려움 없이 관람하였으니, 평소에 그림에 관심 없던 분이더라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는 8월 15일까지이며, 코로나 방역 때문에 회차당 입장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인터넷을 통해 미리 예약하고 가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마거릿 대처 (1925-2013)

- 노먼 파킨슨, 1981 -

‘철의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영국 최초 여성 총리, 마거릿 대처는 총리직을 두 번 수행했으며, 정치인으로서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총리관저에서 사용할 공식 초상화를 제작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대처가 입은 정장은 질서와 효율성이라는 그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화면 뒤쪽에서 빛줄기가 나와 대처의 얼굴을 가로지르며 부드러운 이미지를 보여 줍니다.

MUSEUM

초상화는 ‘나’와 ‘나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레이슨 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체성이란 혼자서는 만들어 낼 수 없는 것. 스스로 만들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의 본질’이라고요.”

전시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는 오래된 전통’을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을 찾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 에드 시런까지〉
설명문 중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 명품전
장소 국립중앙박물관특별전시실
일시 2021.4.29 ~ 2021.8.15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협력 병·의원 선생님들을 위한

2021년 일요종합건강검진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병원 진료협력센터에서 협력 병·의원 선생님들을 위하여 일요종합건강검진을 시행합니다.

이번 일요검진은 COVID-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선생님과 배우자 대상으로만 진행하며 선착순 적정 인원 예약 시 마감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하고 편안한 건강 검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 시 : 2021년 8월 29일 (일요일) 오전 7시 ~ 오후 1시

초청대상 :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협력 체결된 협력 병·의원 선생님과 배우자

신청기간 : 2021년 7월 19일 ~ 2021년 8월 13일

※ COVID-19 관련 안전한 진행을 위해 시간 조정 및 신청 인원을 제한하며,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접 수 : 순천향대학교부속 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

신청방법 : FAX 신청(02-798-9830)

신청 및 확인절차 :



※ 검진 당일 출입구에서 QR코드를 이용하여 [코로나19관련 모바일 사전문진율]을 진행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안전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sch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진료협력센터

☎ 02-709-9900 ☎ 02-798-9830 @schrc@schmc.ac.kr 📍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 순천향대학교병원 본관2층 진료협력센터

진료협력센터
Referral Center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SOON CHUN HY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